

제2권 제1호 통권4호

1월호

2006년 1월 18일 발행

ISSN 1739-8231

수산물 수급정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수산업관측센터
FISHERIES OUTLOOK CENTER

CONTENTS

집중 분석 • 3

2006년 조피볼락의 수급 전망 • 4

생산 및 가격 동향 • 7

감 • 8

넙치 • 13

조피볼락 • 19

굴 • 24

전복 • 28

수출입 동향 • 35

감 • 36

활어 • 37

굴 • 39

전복 • 40

시장 정보 • 41

소비 동향 • 42

도매시장 거래 동향 • 44

해외 동향 •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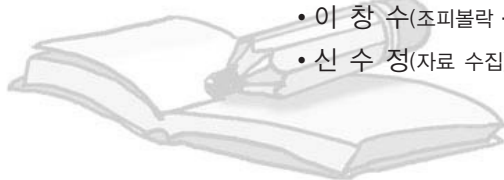
일본 • 48

중국 • 51

해황 정보 • 54

집필진

- 황 기 형(총괄)
- 옥 영 수(생산 · 수급 동향)
- 강 종 호(시장 · 해외 동향)
- 안 재 현(김 생산)
- 백 은 영(가격, 해외 동향)
- 이 남 수(시장, 전복 가격, 해외 동향)
- 김 상 태(전복 생산, 수출입)
- 김 정 협(넙치 생산)
- 이 창 수(조피볼락 · 굴 생산)
- 신 수 정(자료 수집)





OCUS

집중 분석

● 2006년 조피불락의 수급 전망



2006년 조피볼락의 수급 전망

이 창 수 연구원
KMI 수산업관측센터



I. 어류 양식업에서의 조피볼락

조피볼락은 넙치에 이어 우리나라 어류양식업을 대표하는 어종이다. 연간 2만 톤 이상 생산하고 있는 조피볼락 양식업은 종사어가수에서 가장 많은 2천여 어가가 종사하고 있고, 소규모의 영세한 양식어가가 많은 특징이 있다.

양식 조피볼락의 최근 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이후 생산량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지가격도 최근 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조피볼락 양식 경영에 활기를 띠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넙치 양식업에 가격침체 장세가 지속되면서 어류 양식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피볼락 양식업은 아직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는 않지만 마냥 낙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조피볼락도 언제 가격이 급락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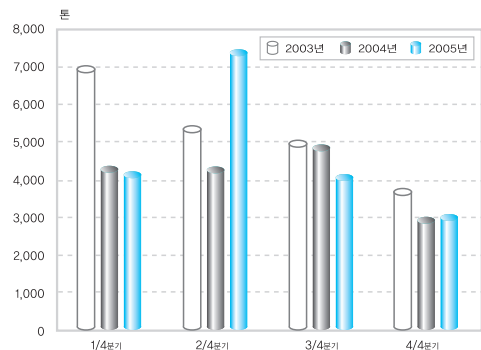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양식 조피볼락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의 수급 상황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II. 최근 조피볼락의 수급 특징 생산량의 꾸준한 증가

조피볼락 양식업은 2003년의 태풍 피해 이후 급격한 생산량의 감소가 있었으며, 이후 양성물량의 꾸준한 증가가 이어졌다. 2005년 11월까지의 조피볼락 생산량은 18,500여 톤으로 2003년 동기간 대비 약 90% 수준에 이르렀다.

이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2005년 2/4분기에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름철 어병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중 출하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2003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에서 완전히 회복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1〉 조피볼락의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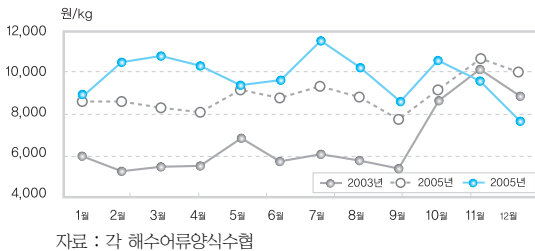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각 년도
주 : 4/4분기는 11월까지의 합계임.

최근 산지가격, 하락세 반전

2003년의 조피볼락 산지가격은 10월까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동년 9월 태풍 ‘매미’의 피해로 출하물량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11월부터 급등세로 반전되었다.

2005년 10월까지의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18.1%, 2003년 대비 74.7% 높게 형성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5년 11월부터 하락세로 반전된 산지가격은 12월에 전년 동월 대비 23.4%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 동월에 비해서도 13.0% 하락한 수준이다.

〈그림 2〉 최근 3년간 조피볼락의 산지 가격 추이



2005년에 치어 과잉 입식

수산업관측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에는 2003년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치어의 입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에 조피볼락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어업인이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입식량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입식된 치어는 2006년 하반기에 출하될 물량이며, 과잉 생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2005년 조피볼락 양식업의 특징은 첫째, 생산량의 꾸준한 증가, 둘째, 연말 산지가격의 하락세 반전, 셋째, 과잉 입식으로 요약된다.

Ⅲ. 2006년 수급 전망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조피볼락 양식업의 최근 동향들을 바탕으로 2006년의 조피볼락 생산량 및 가격에 대해 전망하였다. 그리고 이를 2003년의 태풍 피해 이전 상황과 비교 하였다.

2006년 상반기 수급 전망

2006년 상반기 중 조피볼락의 생산량은 태풍 ‘매미’ 피해 이전인 2003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기에는 2004년에 입식된 물량이 출하되는데, 양성 과정 중 어병에 따른 집단 폐사 등 감소요인이 크게 없었으며, 상반기 중 꾸준히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5년 11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된 조피볼락의 산지가격은 출하물량의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하반기 수급 전망

2006년 하반기에도 2004년도 입식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하되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2005년에 입식된 물량도 함께 대량 출하됨에 따라 생산량은 상반기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05년에 치어가 과잉 입식된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하반기 생산량은 물량적체가 심했던 2003년 상반기 수준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의 조피볼락 산지가격은 상반기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과잉 출하로 인해 가격 하락폭이 전반기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피볼락의 가격 하락은 2006년 상반기의 양식 넙치 대량 출하와 맞물릴 경우, 시장에 양식 활어가 초과 공급됨에 따라 가격 침체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

Ⅳ. 2006년 조피볼락 수급의 문제점

조피볼락은 수출입 물량이 미미하다. 이는 곧 조피볼락 생산량의 대부분이 내수에 의해 소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피볼락은 수출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넙치 등에 비해 내수 의존적 성격이 강하다.

최근 국내의 활어 소비 실태를 살펴보면,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에 의하면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고래회충 오보 등으로 인해 겨울철이 활어의 주 소비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활어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조피볼락의 가격 침체 시기가 앞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출하되지 못하고 적체된 물량이 2006년 상반기 입식과 맞물리면서 입식 공간 마련을 위한 밀어내기식 출하로 과잉 출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원가 이하의 가격 침체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

Ⅴ. 결론

본고에서는 최근의 조피볼락 양식 동향 및 추이를 고찰함으로 향후 야기될 수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

요컨대 조피볼락 양식은 최근 2년간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양식 경영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나, 과잉 입식 등으로 향후 가격 침체의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의 소비 위축으로 문제 발생 시기가 앞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소비를 활성화시킬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며, 이와 아울러 2006년도 입식물량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전에는 수급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이상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산업 관측사업의 도입으로 사전 진단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로 2006년에 수급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제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알았으니 대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roductions & prices

생산 및 가격 동향

● 김

● 넙치

● 조피볼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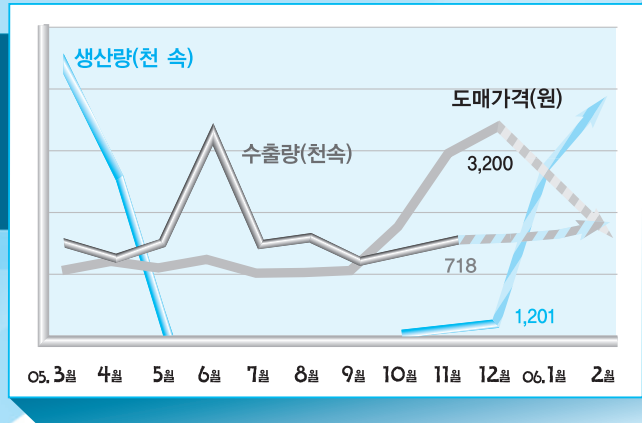
● 굴

● 전복





김



수급 전망

- 2005년 11월 이후 김의 작황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의 생산량도 1,200만 속을 상회하는 등 전년 동월 대비 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추세는 금년 1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김의 산지 위판가격은 전년에 비해 다소 높게 형성되어 12월 현재 속당 3,200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1월 이후에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 산

◎ 12월까지의 김 짝 황, 전년보다 다소 양호

2005년 12월의 1회 수확시 1책당 생산량은 64.8kg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2%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1회 수확시 1책당 생산량은 평균 61.9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산지 대부분의 해역에서 12월 초·중순 경의 폭설과 한파로 업체 성장이 둔화되었고, 이로 인해 채취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

〈어기별 월별 1회 수확시 1책당 생산량의 추이〉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

◎ 대부분 산지에서 예년 수준 이상의 작황 보여

12월에는 대부분의 산지에서 작황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산·경기·충남 및 전남 고흥의 작황이 타 산지에 비해 양호하였다. 그러나 전북 군산·고창, 전남 해남 및 영광 등의 일부 어장에서는 12월 초순부터 지속된 기상악화로 업체가 유실되면서 작황이 예년에 비해 좋지 않았다. 한편, 물김의 품질과 가격은 전국 대부분의 산지에서 예년보다 좋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양식어가의 12월 김 생산현황 평가(예년 대비)〉

구 분	부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신안	진도	해남	완도	고흥	기타
작황수준	○	○	○	×	△	△	×	△	○	△
품질수준	○	○	◎	△	○	○	○	△	○	○
가격수준	○	△	△	△	○	◎	◎	○	○	○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표본어가 설문조사 및 수산관측지역자문위원 자료 결과(2005.12.16~25)

주 : ◎(매우 좋음), ○(좋음), △(비슷), ×(나쁨)

생산 및 가격 동향

2006년산 김 누적 생산량,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

12월에 실제로 채취가 이루어진 시설은 전체 시설의 65.2%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마른김으로 환산한 총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한 약 1,210만 속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06년산 김 누적 생산량은 약 1,740만 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별 월별 김 생산량 추이〉

(단위 : 만 속)

구 분	10월	11월	12월	누적 생산량
2005년산	50.9	507.6	1,125.2	1,683.7
2006년산	54.5	468.5	1,212.3	1,735.3
전년 대비(%)	7.1	-7.7	7.7	3.1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

한편, 양식어가들은 2006년 1월에 전체 시설의 약 80.1%에서 생산을 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황 및 기상여건이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1회 수확시 1책당 생산량을 약 78kg으로 예상하였다.

1차 가공업체 12월 가동일수는 예상보다 적조

12월 초·중순경 폭설과 강풍 등으로 충남·전남 지역의 원초 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산지 1차 가공업체들의 12월 평균 가동일수는 11월 예상(22일)보다 저조한 17일로 조사되었다. 12월에 김을 가공한 업체는 총 298개소, 그리고 업체당 월평균 가공량은 약 4만 7백 속으로 추정된다.

한편, 자반을 제외하고, 12월에 가공된 김의 36.7%가 일반김이며, 돌김 27.5%, 재래김 28.3%, 그리고 파래김은 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차 가공업체의 월별 가동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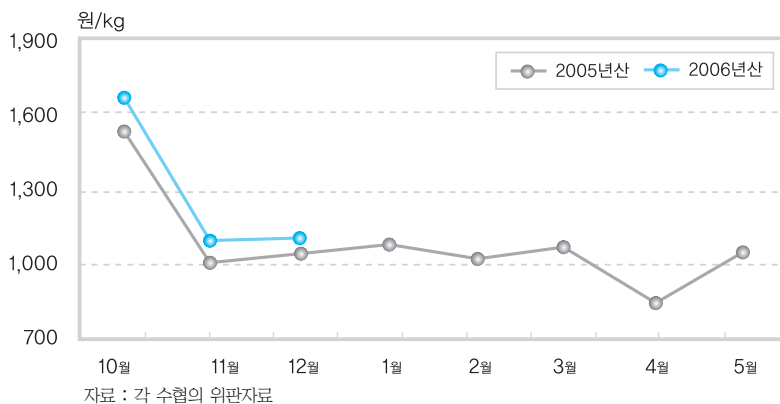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

가격 동향

2006년산 물김 위판 가격, 전년 동기간 대비 다소 상승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물김 위판가격은 전년 동기간 대비 6.7% 상승하였다. 월별로 보면, 11월은 일반김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전월에 비해서는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7.0% 높은 kg당 1,070원이었다. 12월에는 서·남해안 지역에 내린 폭설로 물김 채취작업이 지연되면서 위판 횟수가 줄어들어 전월 대비 1.5% 상승한 kg당 1,087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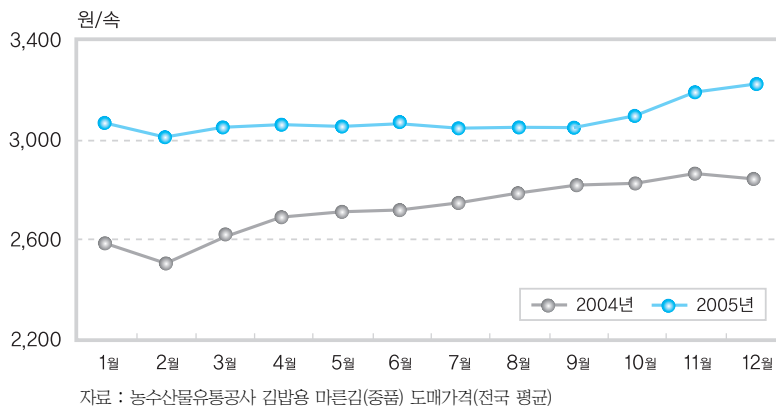
〈어기별 월별 물김 위판가격 추이〉



2005년 12월의 마 른김 도매가격, 전 월 대비 소폭 상승

김밥용 마른김 중품의 2005년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12.8% 상승한 속당 3,070원이었다. 월별로는 10월까지 평균 도매가격이 속당

〈김밥용 마른김(중품)의 월별 도매가격 추이〉



생산 및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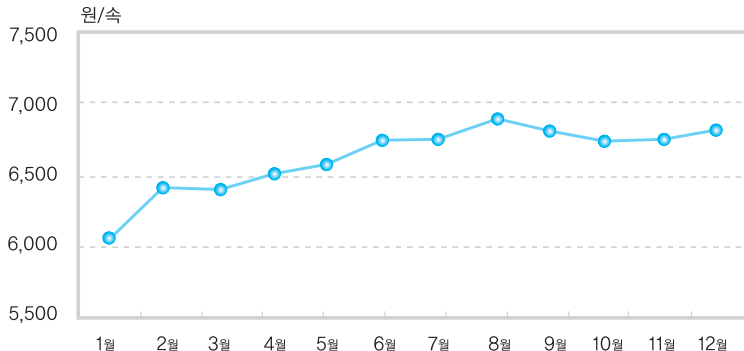
3,047원으로 보험세를 보였다. 그러나 11월에는 전월 대비 2.6% 상승한 속당 3,170원이었으며, 12월에도 상승세가 지속되어 전월 대비 0.9% 상승한 속당 3,200원이었다. 이는 햇김과 맞물려 출하되는 냉동 김의 재고물량이 부족하여 시장유통량이 전월에 이어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2005년 12월 소비자가격, 김밥용 마른김과 조미파래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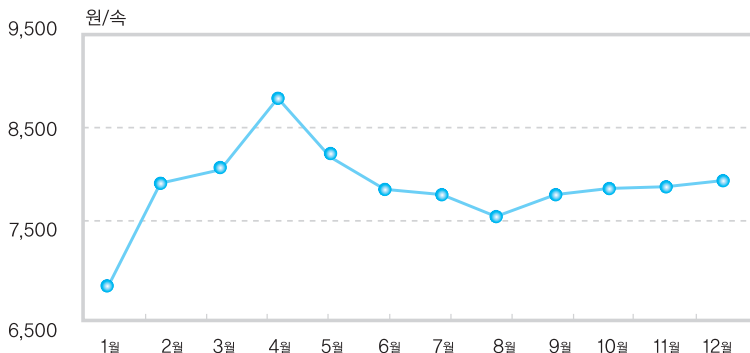
김밥용 마른김의 소비자가격은 10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12월에는 전월 대비 0.9% 상승한 속당 6,787원이었다. 또한, 조미파래김은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져 12월에는 전월 대비 0.8% 상승한 속당 7,960원이었다. 이는 최근 건강 프로그램에서 건강식품으로 김이 소개되면서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김밥용 마른김과 조미파래김의 월평균 소비자가격 추이〉

[김밥용마른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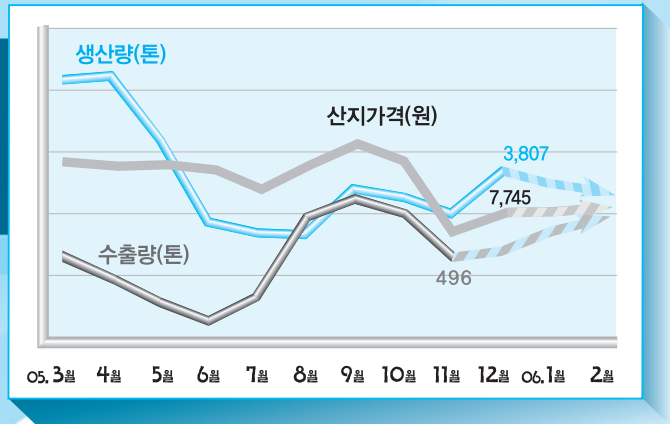


[조미파래김]



자료 : 당 센터 조사업이 전국 5개 주요 도시의 67개 유통업체를 방문·조사한 수치

넙 치



수급 전망

- 최근의 넙치 가격과동은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 · 고래회충 오보로 인한 수요 감소와 출하량 증가가 맞물려 일어났다. 특히 12월에는 3,800여 톤이 출하되었는데, 양성 물량이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으나 성어 양성 물량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1월 이후 출하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요부진과 출하량 증가로 산지가격은 약세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2월의 산지가격이 전월에 비해 다소 반등하였으나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생산 및 가격 동향

생 산

◎2005년 넙치 총 출하량, 약 4만 5천 톤으로 추정

11월의 넙치 출하량은 담수어 식품안전성 문제와 고래회충 오보 사건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월보다 11.0% 감소한 2,980톤으로 조사되었다. 12월의 출하량은 3,807톤으로, 전월보다 27.8%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년 동월의 출하량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5년의 활넙치 총 출하량은 45,133톤으로 추정되며, 크기별로는 1kg 이상이 22,677톤, 500g~1kg 미만은 20,070톤, 그리고 500g 미만은 2,386톤으로 분석되었다.

〈2005년 월별·크기별 넙치 출하 동향〉

(단위 : 톤)

	1~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합 계	26,267	2,651	2,593	3,487	3,348	2,980	3,807	45,133
500g 미만	1,099	253	297	272	182	157	126	2,386
500g~1kg미만	13,062	953	1,004	1,529	1,014	1,094	1,414	20,070
1kg 이상	12,106	1,445	1,292	1,686	2,152	1,729	2,267	22,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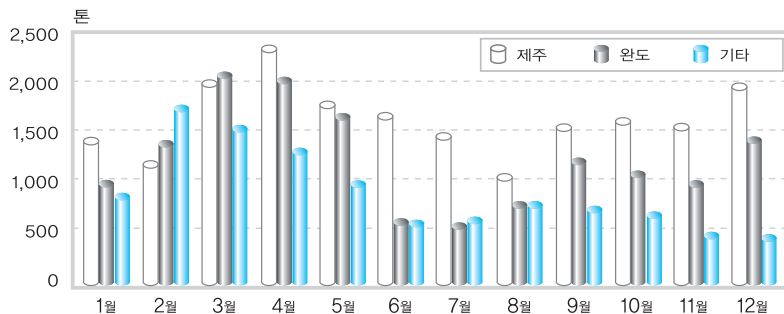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

◎2005년 지역별 출하량, 제주도 43.6%로 가장 많아

11월의 지역별 출하량은 제주·완도가 전월 대비 각각 3.0%, 10.6% 감소하였다. 그러나 12월에는 전월 대비 각각 26.7%, 46.4%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6년 입식을 위해 적체된 물량의 출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기타 지역의 출하량은 11월 이후 감소하였는데, 이는 산지가격의 하락으로 대부분의 어가들이 출하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2005년 월별 지역별 넙치 출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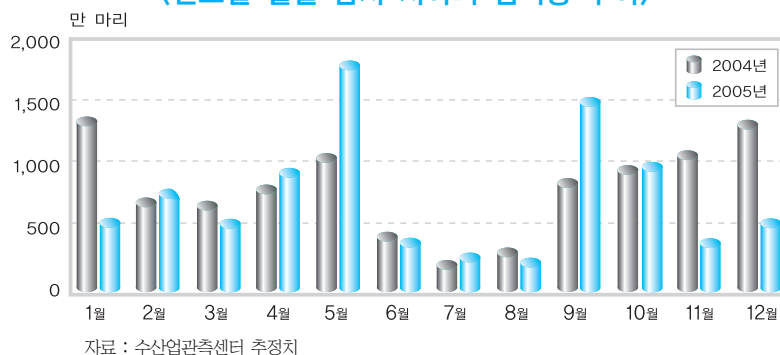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

2005년의 총 출하량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43.6%인 19,688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리고 완도와 기타 지역은 각각 14,775톤, 10,670톤을 출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 총 치어
입식량, 약 9천만
마리로 추정

11월부터 12월까지 입식된 치어는 810만 마리로 전년 동기기간보다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의 총 입식량은 9,100만 마리로 전년도와 비교해 약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출하 물량이 적체되고, 유류비 상승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자 상당수의 어가들이 겨울철 치어 입식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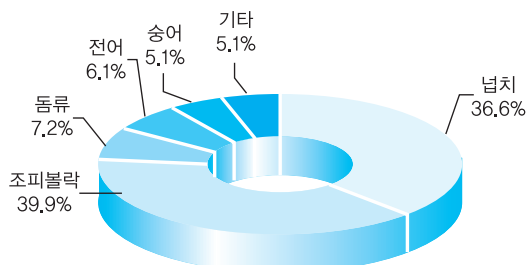
〈연도별 월별 넙치 치어의 입식량 추이〉



◎2005년 전체 치
어 생산량 중 넙치
36.6% 차지

‘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 조사 결과, 2005년의 총 종묘생산량은 약 4억 8,800만 마리로, 이중 넙치는 전체의 36.6%를 차지하는 1억 7,860만 마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총 종묘생산량〉



자료 : 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 조사 결과
주 : 기타 어종에는 볼락, 쥐치, 터봇, 점농어, 동갈돔돔 포함

생산 및 가격 동향

● 11~12월 양성 상태 수온 하락으로 인해 저조

11월부터 12월까지 전 지역에서 수온 하락으로 인해 넙치 성장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에는 완도 및 제주 일부 지역과 해남·고흥에서 폭설로 인한 양식 시설의 붕괴 및 정전으로 폐사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12월 수온이 예년에 비해 1~2℃ 정도 더 낮아져 양성 상태는 전월보다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성 물량, 11월 증가·12월 감소

11월의 양성 물량은 전월 대비 2.1% 증가한 9,507만 마리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내 수요 감소로 출하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12월의 양성 물량은 전월 대비 3.7% 감소한 9,151만 마리로 나타났다. 크기별로는 250g~500g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크기에서 전월보다 증가하였다. 특히, 500g~1kg 미만 크기의 물량은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입식된 치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크기별 넙치 양성 물량 동향〉

(단위 : 만 마리)

구 분	2004년 12월	2005년			
		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합 계	8,265	10,378	9,316	9,507	9,151
250g 미만	4,483	4,172	3,177	3,382	3,554
250g~500g 미만	1,216	3,087	3,038	2,708	1,642
500g~1kg 미만	1,913	2,485	2,543	3,002	3,285
1kg 이상	653	634	558	415	670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

● 지역별 폐사량 폐주가 가장 많아

양식어가 설문조사 결과,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총 폐사량은 4,591톤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주가 45.1%인 2,073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도와 기타 지역은 각각 33.5%, 21.4%인 1,537톤, 981톤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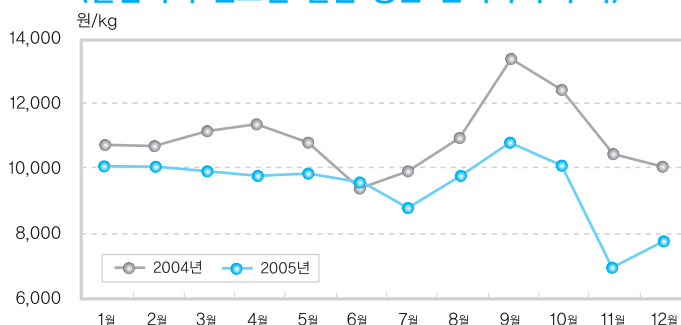
가격 동향

◎2005년 활넙치 산지가격, 12월 들어 하락세 둔화

2005년 활넙치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13.8% 하락한 kg당 9,350원이었다. 월별로는 10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10.4% 하락한 kg당 9,876원이었으며, 11월에도 하락세가 지속되어 전월 대비 31.6% 하락한 kg당 6,902원으로 최저가를 형성하였다.

반면, 12월에는 다소 산지가격이 반등하여 전월 대비 12.2% 상승한 kg당 7,745원이었다. 이는 각 산지에서 전월에 비해 크기가 큰 성어 위주의 출하 물량이 증가하였고, 연말 들어 소비가 다소 회복되면서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활넙치의 연도별 월별 평균 산지가격 추이〉



자료 : 각 지역 해수어류양식수협(포항, 제주, 완도)

주 : 2005년 12월 산지가격은 중순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하순들어 소폭 상승하면서 월 평균 가격이 상승하였음

◎2005년 12월 도매가격, 전월 대비 하락세 지속

고래 회충 오보 사태로 위축된 소비 심리가 연말 들어 일부 회복되면서, 12월 중순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던 활넙치 도매가격은 12월 하순 들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별로는 하남의 1.0kg 크기 활넙치 도매가격이 전월 대비 4.9% 상승한 10,800원이었다. 반면, 부산과 인천은 전월 대비 각각 10.5%, 10.6% 하락한 kg당 8,500원 10,100원이었다.

생산 및 가격 동향

〈활넙치의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원/kg)

구 분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부산활어도매업협동조합	10,800	9,500	8,500	-10.5
인천활어도매업협동조합	11,800	11,300	10,100	-10.6
하남활어유통조합	12,300	10,300	10,800	4.9

자료 : 각 시장별 조사가격

주 : 900g~1.0kg 크기의 kg당 가격임

● 2005년 12월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하락

12월 바다마트와 피쉬세일의 활넙치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5.6%, 7.1% 하락한 kg당 29,856원, 31,000원이었다. 반면, 대형 소매점은 전월 대비 3.1% 상승한 kg당 30,310원이었다.

〈활넙치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 원/kg)

구분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바다마트 ¹⁾	27,594	31,629	29,856	-5.6
대형소매점 ²⁾	30,741	29,403	30,310	3.1
피쉬세일 ³⁾ (싱싱회)	33,375	33,375	31,000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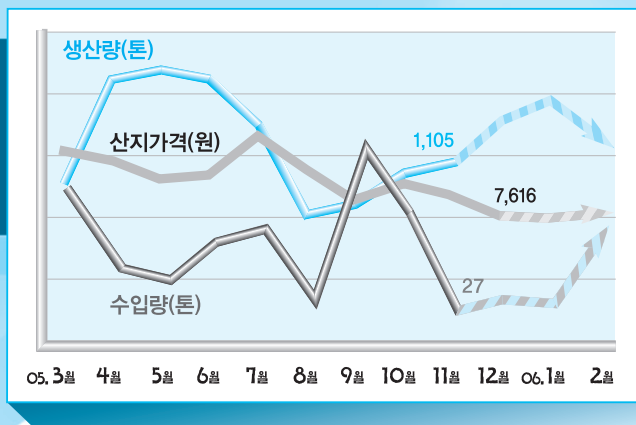
주 : 1) 수협중앙회 잠실 본점의 활넙치 평균 가격(부속 일반음식점으로 부가세 포함가격)임 10~11월 자료는 확정치이며, 12월 자료는 잠정치임

2) 당센터 조사업이 전국 5개 주요 도시의 45개 유통업체를 방문·조사한 수치

3) 수산물 전문 전자상거래 사이트(<http://www.fishsale.com>), 싱싱회는 횡감용 순살 1kg의 가격임



조 피볼락



수급 전망

- 2005년 연말 말라카이트그린 파동과 고래회충 오보로 인한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태풍 매미 이후 신규 입식된 물량이 성어로 성장함에 따라 12월 출하량이 늘어났으며 이런 추세는 1월 이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수요 감소와 출하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가격하락을 야기하여 12월의 산지가격을 Kg당 7,600원으로 하락시켰는데, 1월 이후 넙치 출하량 증가와 맞물려 가격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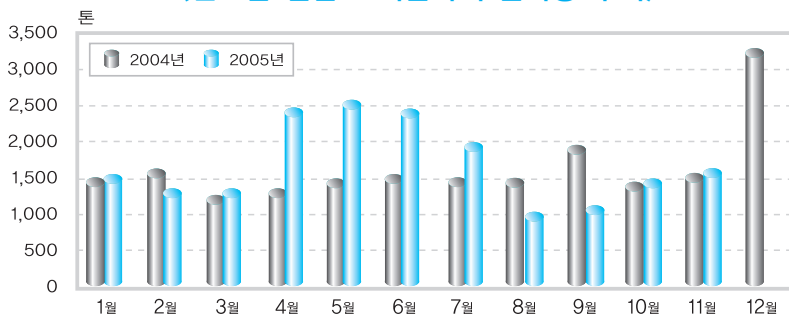
생산 및 가격 동향

생 산

◎ 2005년 10~11월 출하량, 증가세 지속

2005년 10월과 11월의 조피볼락 출하량은 주 출하시기를 맞아 10월이 전월 대비 29.3% 증가한 1,429톤, 11월은 9.2% 증가한 1,560톤이었다. 이는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2.0%,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월별 조피볼락의 출하량 추이〉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각 년도

한편, 2005년 11월까지의 누적 출하량은 18,535톤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충남의 11월 출하 량, 전월보다 크게 늘어

2005년 11월의 지역별 조피볼락 출하량은 경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는데, 특히 충남이 전월 대비 118톤이 늘어난 154톤을 출하하여 가장 많은 증가량을 보였다.

〈지역별 조피볼락 출하량 현황〉

(단위 : 톤)

지 역	2004년 11월	2005년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전 국	1,522	1,105	1,429	1,560	9.2	2.5
충 남	169	26	36	154	327.8	-8.9
전 남	766	608	810	870	7.4	13.6
경 북	114	4	187	66	-64.7	-42.1
경 남	472	462	395	469	18.7	-0.6
기 타	1	5	1	1	0.0	0.0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각 년도

주 : 기타는 부산, 경기, 강원, 전북지역 임

그리고 경남과 전남의 11월 출하량은 전월에 비해 각각 18.7%, 7.4% 증가한 469톤과 870톤을 기록한 반면, 경북은 출하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출하량이 대폭 감소하였다.

한편,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경남과 충남, 그리고 경북의 11월 출하량이 모두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남의 출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국 출하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 상태, 12월 중순 이후 쯤지 못해

11월은 수온이 조피볼락의 성장에 알맞도록 유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섭이 활동이 왕성하고, 활력이 좋았으며 세균성 질병에 의한 폐사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12월 초순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월 중순부터는 수온의 하락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조피볼락의 섭이 활동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신안, 완도, 통영 등 남해안에서는 강한 바람과 파도로 인해 양성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 동향

●2005년 12월 산지가격, 하락세 지속

2005년 11월부터 하락세를 보인 조피볼락의 평균 산지 위판가격은 12월 들어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전월 대비 11.8% 하락한 kg당 7,616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여수의 12월 산지가격이 전월 대비 11.4% 하락한 kg당 7,551원으로 가장 하락폭이 컸으며, 통영은 전월 대비 6.3% 하락한 kg당 7,584원이었다. 이는 양식어가들이 연말 경영 자금난 해소를 위

〈조피볼락의 산지별 위판가격 동향〉

(단위 : 원/kg)

지 역	2004년 12월	2005년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평균단가	9,981	9,227	8,639	7,616	-11.8	-23.7
포항	10,888	10,539	11,317	11,500	1.6	5.6
여수	9,298	10,500	8,525	7,551	-11.4	-18.8
통영	-	8,549	8,098	7,584	-6.3	-

자료 : 각 지역 해수어류양식수협(여수, 포항), 육지수협(통영)

생산 및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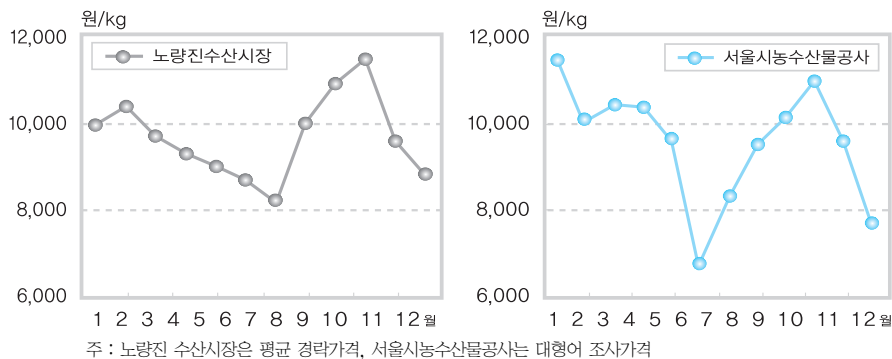
해 출하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반면, 크기가 큰 성어 위주로 출하한 포항은 전월 대비 1.6% 상승한 kg당 11,500원이었다.

◎ 도매가격, 2005년 11월부터 하락세

2005년 12월의 조피볼락 도매가격은 전월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시장별로는 노량진수산물시장이 12월에 전월 대비 7.7% 하락한 kg당 8,806원이었으며, 서울시농수산물공사도 전월 대비 19.5% 하락한 kg당 7,708원이었다. 이처럼 도매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산지에서 집중 출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05년의 시장별 월별 조피볼락의 도매가격 동향〉



◎ 2005년 12월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하락

2005년 12월의 바다마트 조피볼락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3.6% 하락한 29,550원이었다. 그리고 대형소매점의 소비자가격은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여 12월에는 전월 대비 0.2% 하락한 kg당 27,927원이었다. 한편, 피쉬세일은 10월 이후 동일한 kg당 29,750원이었다.

〈조피볼락 소비자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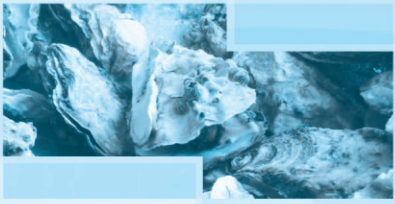
(단위 : 원/kg)

구 분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바다마트 ¹⁾	29,583	30,649	29,550	-3.6
대형소매점 ²⁾	28,518	27,990	27,927	-0.2
피쉬세일 ³⁾ (싱싱회)	29,750	29,750	29,75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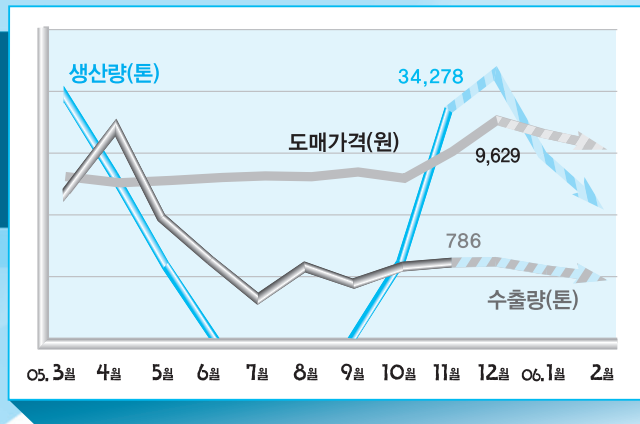
주 : 1) 수협중앙회 잠실 본점의 활납치 평균 가격(부속 일반음식점으로 부가세 포함가격)임. 10~11월 자료는 확정치이며, 12월 자료는 잠정치임

2) 당 센터 조사업이 전국 5개 주요 도시의 45개 유통업체를 방문·조사한 수치

3) 수산물 전문 전자상거래 사이트(<http://www.fishsale.com>), 싱싱회는 횡감용 순살 1kg의 가격임



굴



수급 전망

- 2006년산 굴의 양성 상태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비해 전반적인 생산부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 12월의 출하량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1월 이후도 생산부진으로 인해 출하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2005년 말 중국산 김치파동으로 인하여 직접 김장을 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굴 수요도 크게 늘어나 12월 산지가격이 Kg당 9,600원을 상회하였으며, 가격 강세는 1월 이후도 이어질 것이나 12월 보다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및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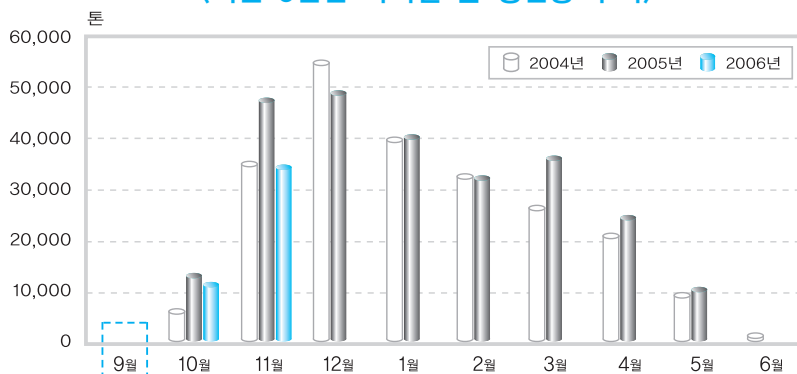
생 산

◎ 2006년산 굴 생산량, 전년산보다 감소

200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굴 생산량은 46,050톤으로 2004년의 동기간보다 24.2% 감소하였다. 월별로는 2005년 10월의 생산량이 1,373톤, 11월은 3,278톤으로 2004년 동월에 비해 각각 12.9%, 27.3% 감소하였다.

이는 굴의 주생산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수에서 수온이 하락함에 따라 양성 속도가 저하되었고, 충남 연안지역 투석식 굴의 종굴 부착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어기별 굴 생산량 추이〉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각 년도

주 : 9월은 굴 생산량이 미미하여 그래프에 표현되지 않았음

또한, 전국 수하식 굴 시설량의 5.5%를 차지하는 경남 남해는 어기 초 일어난 대량 폐사로 인해 12월 중 굴 생산을 조기종료하고 양식 시설을 모두 철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산 굴 생산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05년 11월, 경남·전남 생산량 전월 대비 크게 증가

2005년 11월의 굴 생산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하식 굴의 주 생산 시기를 맞아 경남과 전남이 각각 27,303톤, 5,002톤으로 전월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9.8%, 65.0% 감소하였으며, 특히 전남의 감소폭이 컸다.

한편, 투석식 굴이 주로 생산되는 충남의 11월 굴 생산량은 1,295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월에 비해 33.9%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 굴 생산량 현황〉

(단위 : 톤)

지 역	2004년 11월	2005년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전국	47,130	399	11,373	34,278	201.4	-27.3
충남	1,958	29	338	1,295	283.1	-33.9
전남	14,279	0	23	5,002	21647.8	-65.0
경남	30,254	357	10,851	27,303	151.6	-9.8
기타	639	13	161	678	321.1	6.1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각 년도

주 : 기타는 부산, 인천, 강원지역 임

● 수하식 굴 양성 상태, 2005년 11월 말부터 양호

2005년 11월의 수하식 굴 양성 상태는 주 산지인 통영, 거제, 고성에서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수, 경남 남해에서는 수온 등의 영향으로 다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성 상태는 경남 남해를 제외하고는 11월 말부터 호전되었으며, 12월에는 일시적인 폐사현상이 일부 해역에서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충남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투석식 굴은 기상상태가 나빠지면서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좋지 못한 양성상태가 이어졌다.



생산 및 가격 동향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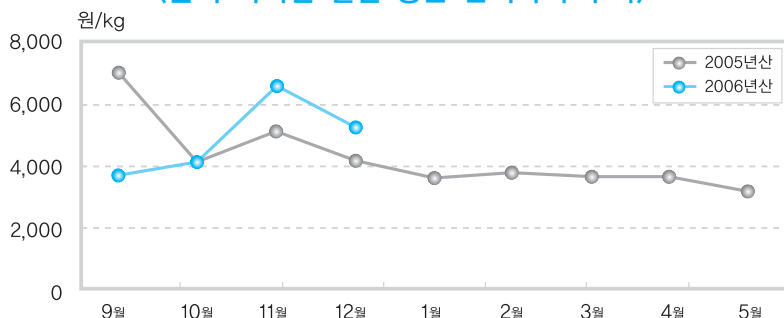
2006년산 굴 산지 가격, 전년 동기 대비 23.3% 상승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굴의 평균 산지 위판가격은 전년 동기간 대비 23.3% 상승한 kg당 5,659원이었다.

월별로는 9월 이후 산지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져 11월에는 전월 대비 55.3% 상승한 kg당 6,575원이었다. 이는 중국산 김치 파동으로 인해 직접 김장을 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김장용 굴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월에 들어서는 산지가격이 kg당 5,206원으로 전월 대비 20.8% 하락하였다. 이는 굴 채취가 본격화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12월 하순 들어 김장철이 끝나면서 굴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굴의 어기별 월별 평균 산지가격 추이〉



자료 : 각 수협외 굴 위판 자료(굴수하식, 고성, 사천, 여수)

2005년 12월 도매가격, 전월 대비 상승

2005년 12월의 생굴 도매가격은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상승하였다. 시장별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11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12월 상품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19.1%, 7.8% 상승한 kg당 9,629원, 11,525원이었다. 이는 예년보다 조금 일찍 찾아온 추위 때문에 김장을 서두르면서 12월 초순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노량진수산물시장은 전월 대비 36.3% 하락한 kg당 5,094원이었다.

〈생굴의 도매가격 추이〉

(단위 : 원/kg)

구 분	2004년 12월	2005년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농수산물유통공사(상품)	7,988	6,869	8,087	9,629	19.1	20.5
노량진 수산시장	3,974	4,741	8,001	5,094	-36.3	28.2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상	7,976	6,725	10,696	7.8	44.5
	중	6,106	5,481	8,420	4.6	37.9

주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조사가격, 노량진 수산시장은 평균 경락가격

● 12월 소매가격, 전월 대비 18.0% 상승

농수산물유통공사의 12월 생굴 상품(上品) 소매가격은 11월부터 상승세를 보여 전월 대비 18.0% 상승한 kg당 12,482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광주가 전월 대비 20%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광주의 상승폭이 39.9%로 가장 컸다.

〈굴 상품의 소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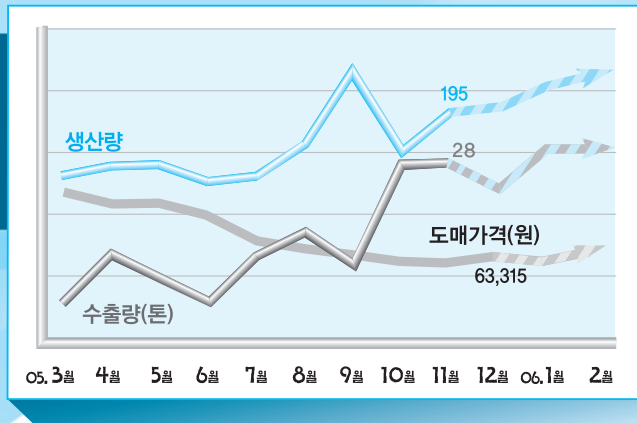
(단위 : 원/kg)

구 분		2004년 12월	2005년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소매 가격	전국	10,759	9,815	10,582	12,482	18.0	16.0
	서울	11,580	9,986	10,847	13,576	25.2	17.2
	부산	8,750	8,500	9,065	11,500	26.9	31.4
	대구	11,000	10,000	10,576	11,864	12.2	7.9
	광주	11,350	8,625	8,989	12,580	39.9	10.8
	대전	10,228	10,202	10,717	11,592	8.2	13.3
	청주	-	-	12,310	12,568	2.1	-

주 :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가격



전 복



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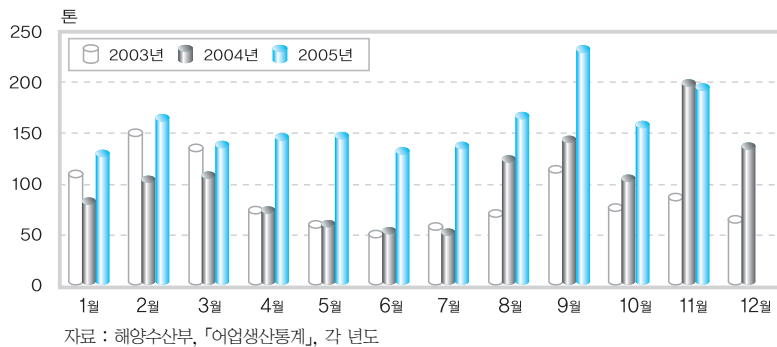
- 2005년 12월까지 전복출하량은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6년 1월 이후 출하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겨울철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출하량 증가는 가격 약세를 지속화시켰는데, 1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약세가 예상된다.

생산 동향

◎전북 출하량, 3년간 계속 증가

2005년 11월까지의 전북 출하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56.4% 증가한 1,755톤으로,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하였다. 월별로는 10월에 159톤, 11월은 전월 대비 22.6% 증가한 195톤이 출하되었다. 이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치패 입식을 위해 성패 출하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연도별 월별 전북 출하량 추이〉



◎2005년 11월의 신안 전북 출하량, 전월 대비 대폭 증가

2005년 11월까지의 지역별 출하량을 살펴 보면, 전남 완도가 1,409톤으로 전국 출하량의 80.3%를 차지하였고, 해남이 82톤(4.7%), 여수·고흥이 78톤(4.4%) 순으로 나타났다.

11월의 완도 출하량은 146톤으로 전월에 비해 22.7% 증가하였고, 10월에 각각 1톤, 2톤이었던 신안과 제주의 출하량은 11월에 각각 10톤을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밖에 해남은 8톤, 진도와 여수·고흥은 각각 5톤이 출하되었다.

◎2005년 12월까지 전북 치패 입식량, 약 1억 1천만 마리

해양수산사무소 담당자 조사 결과, 2005년 12월까지 약 1억 1,100만 마리의 전북 치패가 입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북의 주 출하지인 완도는 전북의 먹이인 미역 작황이 좋지 못해 작년보다 입식 시기가 다소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입식량의 60.4%를 차지하는 6,700만 마리가 입식되었다. 그리고 여수·고흥은 1,300만 마리, 진도와 신안은 각각 1,200만 마리가 입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및 가격 동향

2005년 12월 말 총 양성 물량, 약 3 억 6,600만 마리

2005년 12월 말 현재 양성 물량은 전남이 3억 5,546만 마리, 제주
는 1,129만 마리로 총 3억 6,675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크기별로는, 치패 입식이 11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5~20g 미
만이 1억 4,772만 마리로 전체 양성 물량의 40.3%를 차지하였고,
20~50g 미만은 1억 2,467만 마리, 50~120g 미만은 9,038만
마리가 양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크기별 전복 양성량 현황〉

(단위 : 만 마리)

구분	5~20g 미만	20~50g 미만	50~120g 미만	120g 이상	합계
합계	14,772	12,467	9,038	398	36,675
전남					
소계	13,817	12,317	9,014	398	35,546
완도	11,200	8,800	7,500	200	27,700
여수·고흥	590	1,160	115	10	1,875
진도	920	680	850	5	2,455
신안	587	897	129	33	1,646
해남	520	780	420	150	1,870
제주	955	150	24	0	1,129

자료 : 각 지방 해양수산사무소 조사 집계자료, 2005년 12월 29일 기준

주 : 전남,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제외하였음

올해 1월의 전복 출하량, 약 325만 마리에 이를 듯

해양수산사무소 담당자 조사결과, 2006년 1월의 전복 출하량은 약
325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주 출하 규격은 60~120g 크기
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진도는 대일 수출을 위한 출하량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50.0% 증가한 1백만 마리가 출하될 것으로 예
상되고, 그밖의 주산지인 1월 명절(설)특수와 작년 12월부터 상승한 산
지가격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전월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1월의 지역별 전복 예상 출하량〉

(단위 : 만 마리)

구분	합계	전남						제주
		소계	완도	여수·고흥	진도	신안	해남	
출하예상량	325	320	160	20	100	25	15	5

자료 : 각 지방 해양수산사무소 조사 집계자료, 2005년 12월 29일 기준

◎2005년 전북 종묘 총 생산량, 3억 5천만 마리 추정

2005년의 전북 종묘 총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41.4% 증가한 3억 5,200만 마리가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진도의 종묘 생산량은 1억 5천만 마리로 전년에 비해 15.4%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시설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도는 기존 육상수조식 양식장들이 전북 종묘배양장으로 전환하면서 전년 대비 19.4% 증가한 6,700만 마리의 종묘가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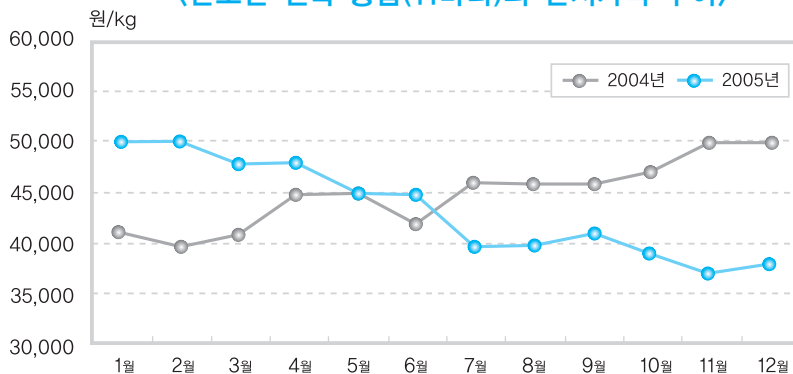
가격 동향

◎2005년 12월 완도산 전북 가격, 전월 대비 2.7% 상승

2005년 11월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완도산 전북 중품(kg당 11마리 규격)의 산지가격은 12월 들어 소폭 상승하였다.

1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6.0% 하락한 kg당 37,000원으로 연중 최저가격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2월에는 급이 문제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산 전북 중품(11마리)의 산지가격 추이〉



자료 : 완도군수협 전북직판장 크기별 전북가격
주 : 가격자료는 매월 15일 가격임

생산 및 가격 동향

12월 노화도 전복 산지가격, 소폭 상승

노화도의 전복 산지가격도 12월 들어 전월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는데, 이는 겨울철 전복 사료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양식어가들이 중량 감소를 우려하여 출하를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흑산도의 산지가격은 11월 초순에 8~9마리 규격이 kg당 6.3% 하락하였으나, 11월 하순에는 동월 초순 대비 10.4% 상승한 53,000 원이었다. 그리고 12월에는 관광객이 거의 없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복 주요 산지의 월별·크기별 가격〉

(단위 : 원/kg)

구 격		6미	7미	8미	9미	10미	11미	12미	13미
노화도	10월	-	51,000	48,000	43,000	41,000	38,000	36,000	35,000
	11월	-	51,000	46,000	43,000	40,000	37,000	35,000	33,000
	12월	-	53,000	47,000	43,000	41,000	39,000	36,000	33,000
	전월 대비(%)	-	3.9	-	2.5	5.4	2.9	-	-
흑산도	10월(A)	60,000		48,000		40,000		30,000	
	11월 03일	60,000		45,000		-		-	
	11월 26일(B)	63,000		53,000					
	12월	-		-		-		-	
	B/A(%)	5.0		10.4		-		-	

자료 : 각 수협 전복직판장의 kg당 마리 수별 전복 가격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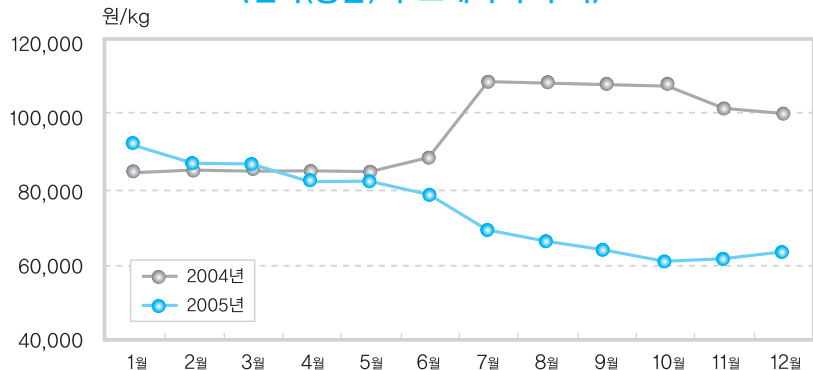
주 : 가격 자료는 매월 15일 가격이며, 흑산도의 경우 12월에는 전복을 매입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형성이 안됨

12월 전복 중품 도매가 격, 소폭 상승

2005년 들어 하락세를 지속하던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전복 중품 도매가격은 11월부터 소폭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11월에는 전월 대비 0.4% 상승한 kg당 61,423원이었으며, 이러한

〈전복(중품)의 도매가격 추이〉



자료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전복 중품 도매가격

상승세는 12월까지 이어져 전월 대비 3.1% 상승한 kg당 63,315원이었다.

● 12월 전북 소비자 가격, 바다마트 상승

바다마트의 11월 전북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1.4% 하락한 kg당 96,800원이었으나, 12월에는 산지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전월 대비 5.7% 상승한 102,300원이었다.

반면, 대형소매점의 양식산 전북 소비자가격은 10월에 연중 최고가인 118,000원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12월에는 전월 대비 6.5% 하락한 kg당 96,667원이었다. 대형소매점의 자연산 전북 소비자가격은 지난 6월 이후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전북의 소비자 가격〉

(단위 : 원/kg)

구 분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바다마트 ¹⁾		98,212	96,800	102,300	5.7
대형 소매점 ²⁾	양식산	118,357	103,333	96,667	- 6.5
	자연산	176,143	175,929	176,143	0.1

주 : 1) 수협중앙회 잠실 본점의 전북 평균 가격(부속 일반음식점으로 부가세 포함 가격)임. 10~11월 자료는 확정치이며, 12월 자료는 잠정치 임

2) 전국(5개 주요도시) 11명의 시장가격 조사원이 45개 유통업체를 방문 · 조사한 수치





Exports & imports

수출입 동향

● 김

● 활어

● 패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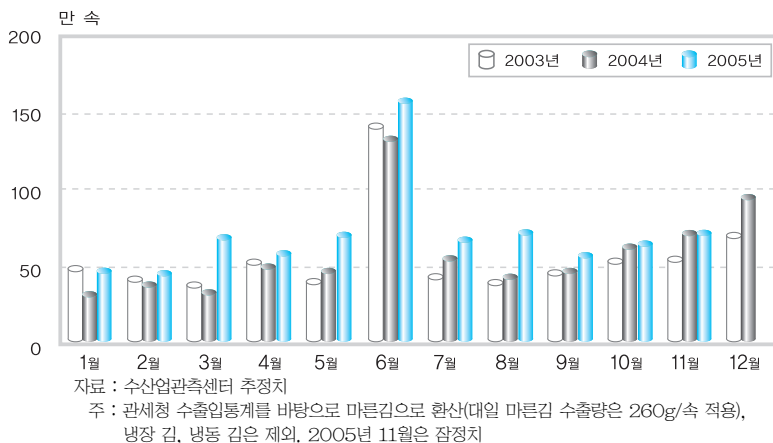


김 수출입 동향

2005년 11월까지의 김 수출량, 9월 이후 계속 증가

2005년 11월까지의 김 수출량은 780만 속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5% 증가하였다. 월별로는 10월에 65만 속, 11월에는 72만 속이 수출되었다.

〈연도별 월별 김 수출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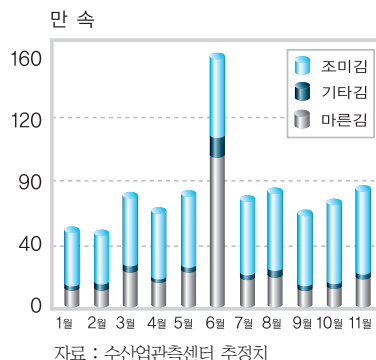


2005년 11월, 마른김 수출 증가, 조미김 소폭 감소

2005년 11월의 대미 수출량은 32만 속으로 전월에 비해 22.2% 증가하였으나, 대일 수출량은 조미김 수출 부진으로 전월 대비 9.1% 감소한 11만 속을 기록하였다.

제품별로는 조미김이 11월 전체 김 수출량의 72.2%에 해당하는 52만 속이 수출되어 전월 대비 2.7% 증가하였다. 한편, 마른김은 81만 속으로 전월 대비 61.9% 증가하였는데, 이는 11월에 일본과 대만, 중국 등지에서 한국산 마른김 수요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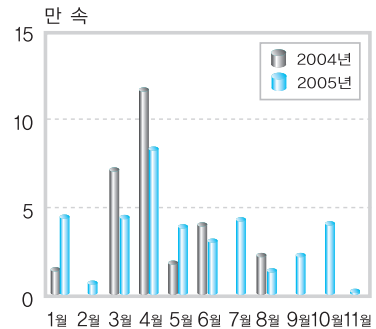
〈월별 제품별 김 수출량 추이〉



◎2005년 11월의
김 수입량, 전월
대비 대폭 감소

2005년 11월까지의 김 수입량은 39만 속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4% 증가하였다. 그중 중국산 마른김은 37만 속으로, 전체 김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월별로는 10월에 4만 속, 11월은 1천 속이 수입되었다.

〈월별 중국산 김 수입량 추이〉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

활어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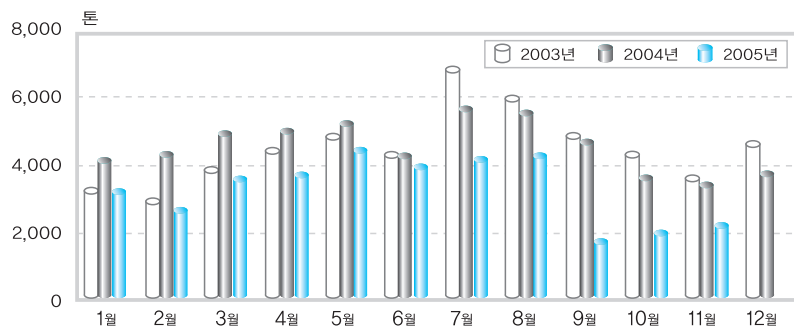
◎2005년 11월까지
의 활어 무역수지,
7,852만 달러 적자

2005년 11월까지의 활어 수출량은 7,721톤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7.3% 증가하였다. 월별로는 10월에 847톤, 11월은 전월 대비 16.3% 감소한 709톤이 수출되었다.

활어 수입량은 담수어 식품안전성 문제로 9월에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10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11월은 2,196톤이 수입되었다. 2005년 11월까지의 활어 누적 수입량은 약 3만 5,900톤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9.1%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11월까지의 활어 무역수지는 수출액이 8,158만 달러, 수입액은 1억 6,010만 달러로 7,852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연도별 월별 활어 수입량 추이〉



자료 : 관세청, 「수출입 통계」, 각 년도

수출입 동향

2005년 활넙치 수출량, 10월부터 감소

2005년 11월의 활넙치 수출량은 486톤으로 전월에 이어 계속 감소하였다. 이는 10월부터 주된 수출 대상국인 일본에서 자국산 넙치가 출하되면서 한국산 활넙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11월까지의 활넙치 누적 수출 실적은 5,083톤, 5,698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월별 활넙치 수출추이〉

(단위 : 톤, 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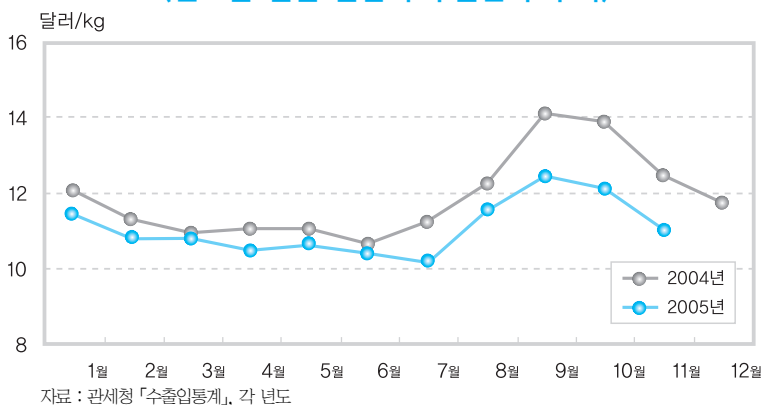
구 분	2004년		2005년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11월		9월		10월		11월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물 량	452	4,081	630	4,002	595	4,597	486	5,083	-18.3	7.5	24.6
금 액	561	4,943	783	4,442	720	5,161	537	5,698	-25.4	-4.3	15.3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2005년 활넙치 수출단가, 하락세 지속

2005년 11월의 활넙치 수출단가는 kg당 11.1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5% 하락하였고, 전월에 비해서도 8.3% 하락하였다. 이 같은 수출단가의 하락은 국내 활넙치 수출업체간 경쟁 심화와 9월 이후 지속된 엔화 약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연도별 월별 활넙치 수출단가 추이〉



2005년 11월까지의 활농어 수입량, 전년 동기 대비 48.9% 감소

2005년 11월까지의 활농어 수입량은 3,6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9% 감소하였고, 활민어 수입량도 전년 동기 대비 32.9% 감소한 3,600톤을 기록하였다.

이 두 품목의 수입량이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은 대부분 중국산으로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국내 활어 소비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주요 활어 품목별 누적수입량 동향〉

(단위 : 톤)

구 분	2004년	2005년	
	11월(누적)	11월(누적)	전년 동기 대비(%)
계	50,640	35,902	-29.1
활농어	7,042	3,600	-48.9
활민어	4,897	3,287	-32.9
활 돔	3,888	3,850	-1.0
활넙치류 ¹⁾	495	815	64.6
활조피볼락	582	710	22.0
기타 ²⁾	33,736	23,640	-29.9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주 : 1) 활넙치류는 활넙치, 활가자미, 활서대 등을 포함

2) 기타는 상기 5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활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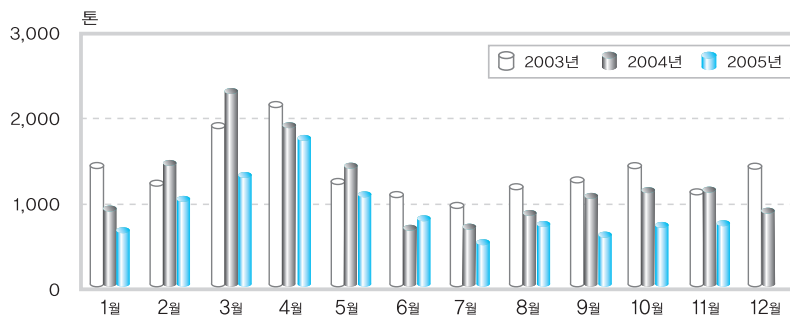
패류 수출입 동향

○ 2005년 11월까지
의 굴 수출량, 전년
동기간 대비 25.0%
감소

2005년 11월까지의 굴 누적 수출량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25.0% 감소한 10,308톤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굴 수출량의 감소는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산에 비해 뒤지고 있으며, 국내 굴 소비 확대로 내수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품별로는 냉동굴이 전체 굴 수출의 55.0%에 해당하는 5,669톤이 수출되었고, 굴 통조림과 건조굴 수출량은 각각 2,868톤과 418톤을 기록하였다.

〈연도별 월별 굴 수출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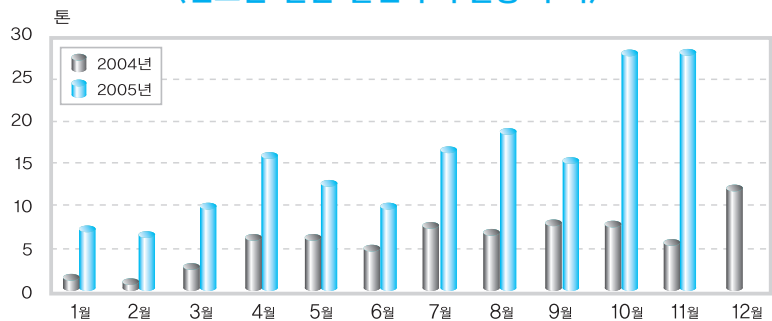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각 년도

수출입 동향

◎ 2005년 11월 월 전복 수출량 28톤, 월별 최대 물량 기록

2005년 11월까지의 활전복 수출량은 168톤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84.7% 증가하였고, 월별로는 10월과 11월에 각각 28톤이 수출되어 월별 최대 수출 물량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수출 물량이 급증하는 것은 국내 출하량 증가로 단가가 하락되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었고, 주 수출 대상국인 일본의 한국산 활전복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연도별 월별 활전복 수출량 추이〉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각 년도





Market Information

시장 정보

● 소비 동향

● 도매시장 거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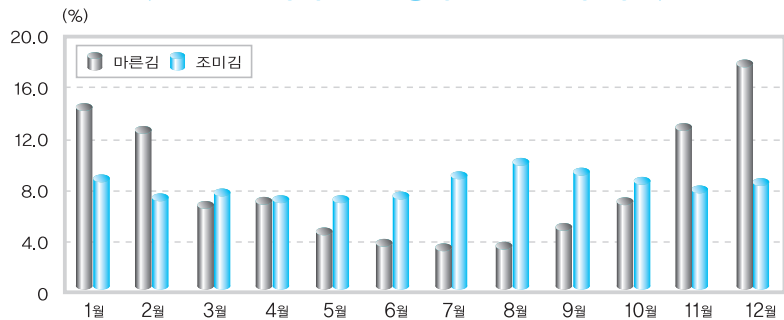


소비 동향

● 월별 김 판매액, 마른김은 12월, 조미김은 8월이 최대

할인점인 A사의 마른김과 조미김의 월별 판매액 비중을 조사한 결과, 마른김은 12월(17.9%), 조미김은 8월(10.1%)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른김은 7월(3.5%), 조미김은 4월(7.2%)에 판매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할인점 A사의 월별 종류별 김 판매 비율〉



자료 : 할인점 A사의 월별 김 매출액 자료

주 : 월별 김 매출액 중 명절 성수기에 판매되는 세트김(마른김과 조미김의 혼합)의 매출액은 제외함

한편, 마른김은 겨울철인 11~12월, 1~2월에 연간 매출의 58.0%가 집중되는데, 이는 햇김이 출하되면서 소비가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조미김의 경우에는 7~10월에 연간 매출의 37.2%가 집중되는데, 이는 휴가철과 행락철에 많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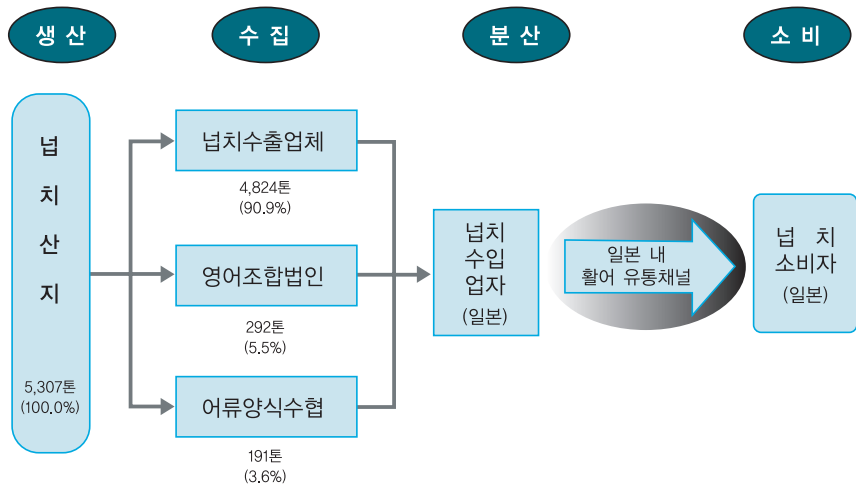
● 명절 성수기 김 선물세트, 중소기업체가 많이 이용

대형소매점 수산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명절 성수기 김 소비동향 조사 결과, 중소기업체가 선물용 세트김을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소기업은 직원선물용으로 100만원 이하의 예산에서 30~40명 분량의 세트김을 많이 구매하는데, 이는 다른 선물세트에 비해 저렴하면서 풍성한 느낌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 활넙치, 대부분이 활어 유통업체를 통해 수출

국내 활넙치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주에서는 전체 수출량의 90.9%를 수출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의 월별 활넙치 수출은 3월과 10~12월의 4개월에 38.7%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활넙치 대일 수출 경로〉



자료 : 주요 활넙치 수출업체(3곳) 탐문조사(2005.11.15~17) 결과

주 : 2005년도 제주지역 넙치 수출량은 5,307톤이었으며, 영어조합법인과 수협은 각각 292톤, 191톤을 수출한 것으로 추정됨. 단, 영어조합법인은 2005년 1월, 수협은 2005년 3월부터 넙치 수출을 시작하였음

● 일본 바이어, 타원형 넙치를 선호

주요 활넙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일본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넙치 체형을 조사한 결과, 타원형에 지느러미 부분에 지방이 풍부한 넙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선호도는 여름철보다 가을철 이후에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 내 자국산 넙치의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구매기준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일본 바이어들의 넙치 선호〉



선호하는 체형



선호하지 않는 체형

● 대일 수출용 국산 활넙치, '색깔' 이 가장 큰 경쟁력

국내 주요 활넙치 수출업체들은 대일 수출용 활넙치가 일본산 활넙치에 비해 '색깔' 이 더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외에 가격, 체형 및 선도, 맛 등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대일 수출용 한국산 활넙치의 부문별 평가〉

구 분	가격	선도	맛	색깔	체형
A사	○	○	○	◎	◎
B사	○	○	○	○	○
C사	◎	○	○	◎	○

자료 : 주요 활넙치 수출업체(3곳) 탐문조사(2005.11.15~17) 결과

주 : ◎ 아주 좋음, ○ 좋음, △ 보통

도매시장 거래동향

◎2005년 11월 노량진시장 활넙치 도매가격, 자연산 넙치 반입량 증가로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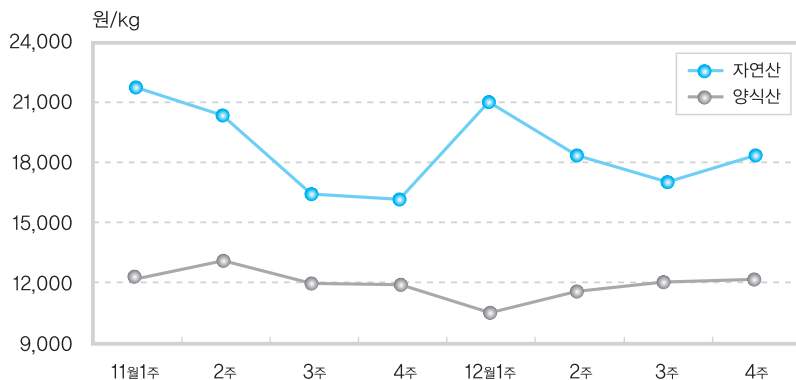
2005년 11월의 노량진수산시장 활어 거래동향을 보면, 자연산 넙치가 제철을 맞아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반면 양식산 넙치는 보합세를 이루었다.

11월 초에는 일기불순으로 자연산 넙치의 반입량이 줄어 kg당 20,000원 이상이었으나, 중·하순에는 16,000원대를 형성하였다. 반면, 양식산 넙치는 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kg당 12,000~13,000원대를 형성하였다.

◎노량진시장 넙치 가격, 12월 중·하순 이후 소폭 상승

2005년 12월 초순, 노량진수산시장의 양식산 넙치가격은 일찍 찾아온 추위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였다. 반면, 자연산은 체장이 큰 넙치의 반입이 많아지면서 kg당 21,000원대를 형성하였다.

〈노량진수산시장 넙치 중품(中品)의 주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 노량진수산시장, 「수산물 주간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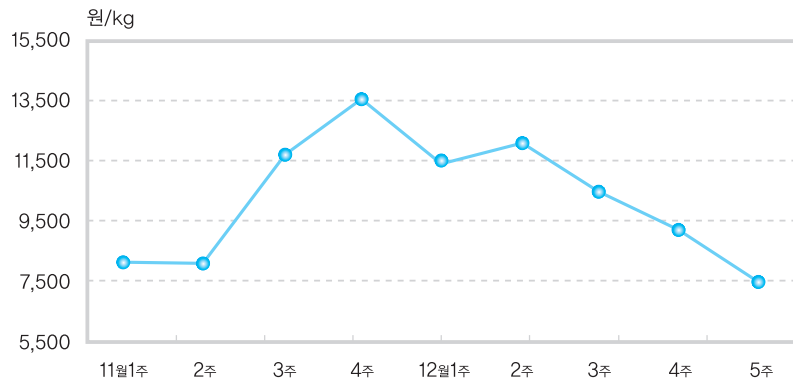
한편, 12월 하순부터 자연산 넙치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양식산 넙치는 강보합세를 보였다.

● **굴 상품 도매가격,
2005년 11월 중
순~12월 초순 최
고 가격대 형성**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굴 상품(上品) 가격은 본격적인 김장철인 2005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kg당 11,000원 이상의 고가격을 형성하였다.

특히, 11월 하순에는 김장철 특수와 중국산 김치파동으로 인해 1일 1만여 상자의 반입량에도 불구하고 1만 원 이상의 고가격으로 거래되었다. 12월 중·하순에는 한파와 폭설로 인해 반입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장철이 끝나 수요가 감소하면서 약세를 지속하였다.

〈가락시장 굴 상품(上品)의 주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수산물 주간동향」



broad

해외 동향

● 일본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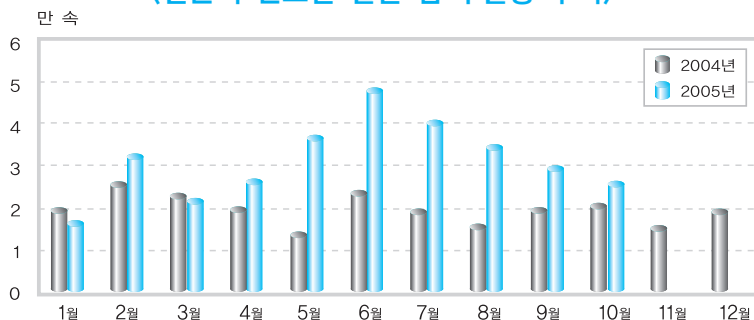


일본

○ 2005년 10월까지 일본 김 수출량, 전 년 동기간 대비 증 가세

10월까지 일본의 김 수출량은 약 311만 속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4.2% 증가하였다. 이를 주요 김 수출 대상국별로 보면, 홍콩과 대만 으로의 수출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76.2%, 34.7% 감소한 반면,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0.8%, 782.4% 증가 한 99만 속, 53만 속이었다.

〈일본의 연도별 월별 김 수출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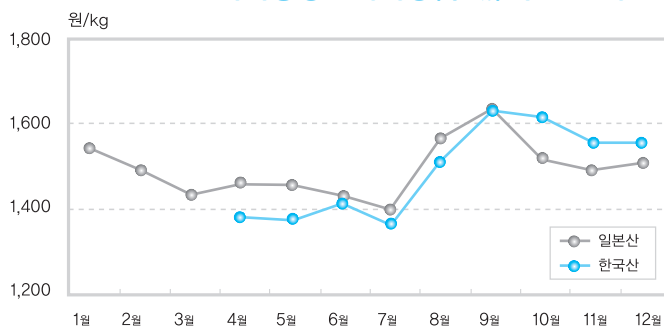


자료 : (사)일본 수산물무역협회, 「수산물무역통계연보」

○ 2005년 12월의 한국산 활납치 도 매가격, 약보합세

12월 오오사카중앙도매시장(本場)에서 거래된 한국산 활납치 도매가격 은 2005년 9월에 kg당 1,633엔으로 연중 최고가를 형성한 후 지속 적으로 하락하여 12월에는 전월 대비 0.1% 하락한 kg당 1,557엔이었 다. 반면, 일본산은 9월에 kg당 1,635엔으로 최고가를 형성한 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12월에는 전월 대비 1.2% 상승한 kg당 1,503엔이었다.

〈2005년 일본 오오사카중앙도매시장(本場)의 활납치 도매가격〉



자료 : 일본 오오사카중앙도매시장(<http://www.shijou.city.osaka.jp>)

● 2005년 11월의
일본 생굴 도매가
격, 전월 대비
1.4% 하락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의 11월 생굴 평균 도매가격은 전월에 비해 반입
량이 증가하면서 kg당 423엔으로 전월 대비 1.4%, 전년 동월 대비
0.9%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미야기산과 이와테산이 전월 대비 각각
5.6%, 1.2% 하락하였다.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의 산지별 생굴 가격〉

(단위 : kg, 엔)

구 분		2004년 11월	2005년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반입량		492,023	84,206	427,434	441,849	3.4	-10.2
가격	평균	427	556	429	423	-1.4	-0.9
	히로시마(廣島)	-	-	-	740	-	-
	미야기(宮城)	307	407	378	357	-5.6	16.3
	이와테(岩手)	424	772	424	419	-1.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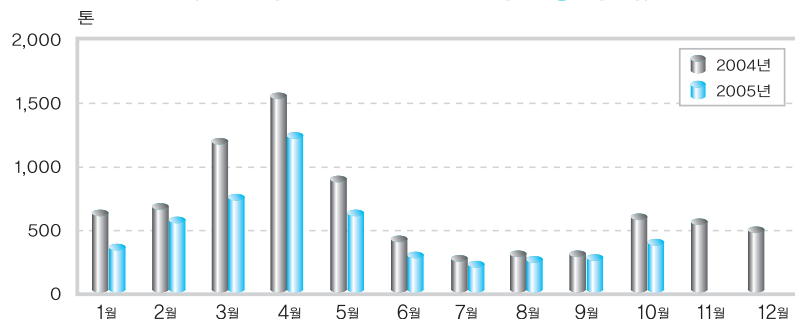
자료 :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http://www.shijou-tokei.metro.tokyo.jp>), 2005년 12월 31일 기준

주 : 반입량은 시장전체의 반입량, 평균가격은 반입량 전체에 대한 평균 가격임.

● 2005년 10월까지
의 일본 굴 수입
량, 전년 동기간
대비 26.7% 감소

2005년 10월까지 일본의 생굴 수입량은 5,020톤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6.7% 감소하였다. 주요 수입국별로는 한국이 4,666톤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8.7% 감소하였으며, 중국도 31.9% 감소한 78톤이었다.
반면, 뉴질랜드는 전년 동기간 대비 44.0% 증가한 153톤이었다.
월별로는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0월에는 전월 대비 38.9%
증가한 395톤이 수입되었으나, 전년 동월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쳤다.

〈일본의 연도별 월별 굴 수입량 추이〉



자료 : (사)일본 수산물무역협회, 「수산물무역통계년보」

2005년 11월의 일본 전복 도매가 격, 전월 대비 4.7% 하락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의 2005년 11월 전복 평균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전월에 비해 증가하면서 kg당 7,481엔으로 전월 대비 4.7%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지바산의 전복 도매가격이 전월 대비 14.7%로 가격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도쿄산과 미야기산도 전월 대비 각각 2.4%, 1.5% 하락하였다.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의 산지별 전복 가격〉

(단위 : kg, 엔)

구 분		2004년 11월	2005년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반입량		73,174	48,832	48,281	49,760	3.1	-32.0
가격	평균	7,679	7,742	7,850	7,481	-4.7	-2.6
	지바(千葉)	7,566	8,127	8,573	7,313	-14.7	-3.3
	도쿄(東京)	5,490	6,043	5,901	5,762	-2.4	5.0
	미야기(宮城)	8,510	8,708	8,521	8,397	-1.5	-1.3

자료 :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http://www.shijou-tokei.metro.tokyo.jp>), 2005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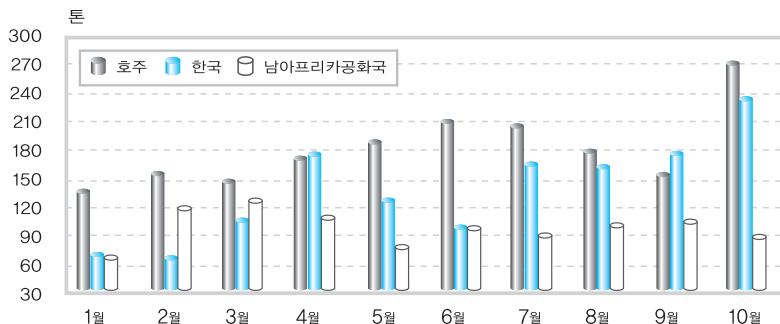
주 : 반입량은 시장전체의 반입량, 평균가격은 반입량 전체에 대한 평균 가격임.

2005년 10월까지 일본의 한국산 활 전복 수입량, 전년 동 기 간 대 비 166.6% 증가

10월까지 일본의 활전복 국별 누적 수입량은 한국산이 전년 동기간 대비 166.6% 증가한 138톤이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산도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97톤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호주산은 전년 동기간 대비 5.8% 감소한 182톤이었다.

월별로는 3/4분기에 감소세를 보인 호주산 수입량은 10월에 전월 대비 75.9% 증가한 273톤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산도 전월 대비 31.8% 증가한 233톤이었다.

〈2005년의 일본 활전복 주요 국별 월별 수입량 추이〉



자료 : (사)일본 수산물무역 협회, 「수산물무역통계연보」

- **일본, 첫 햇김 낮은 등급도 고가격에 거래**

11월말부터 전국에서 시작된 공판에서 전년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다. 이는 상품(上品)의 재고량이 적고 전년에 비해 2·3등급 이상에서 「맛이 좋은 김」이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의 김 소비경향은 「색택」보다는 「맛」을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海苔Times」, (일본, 2005년12월호)〉
- **일본 김 양식장, 강력한 저기압층 형성으로 해황 호전 기대**

일본에서는 영양염의 감소와 붉은 갯병 발생으로 추아(秋芽)생산에 피해가 우려되었다. 그러나 서일본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강력한 저기압층이 통과하면서 영양염이 회복되고 병해가 해소되어 향후 김 생산량 증대가 기대된다. 〈「海苔Times」, (일본, 2005년12월호)〉
- **일본,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에서 육상 수조식 넙치 양식 시작**

일본 미츠비시(三菱)상사는 2003년부터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에서 육상 수조식 넙치 양식을 시작하였으며, 2004년 말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 등으로 시험 출하하고 있다. 앞으로 미츠비시 상사는 넙치를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讀賣新聞」, 2005.9.12〉
- **일본 아오모리(靑森)현, 수산물 생산이력추적제에 새로운 방식 도입**

아오모리(靑森)현 오소카와시 13개소 어업협동조합에서는 재첩에 생산이력추적제를 실시하면서 카메라 폰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해 산지, 유통경로, 생산자 얼굴, 입찰일의 정보를 보다 손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타 수산물에도 이러한 방식의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中國新聞」, 2005.10.17〉

중 국

- **중국 타이산, 김 원종 도입으로 김 생산량 20% 이상 증가 예상**

일본의 김 IQ 글로벌화와 국제 김 가격의 상승으로 중국에서는 김 양식업이 어업인들 사이에 붐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김 산지에서는 품종의 열성화로 품질이 저하되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타이산(岱山)구 어업기술보급소에서는 푸젠(福建)성 핑탄(平潭)으로부터 김 원종(原種) 25kg을 구입하여 약 3톤의 종묘를 생산하여 약

15ha 면적의 김 양식장에 공급(1ha당 종묘 공급가격 7,000元)하였다. 이로써 김 생산량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며, 가격도 kg당 10위안(元)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山县海洋与渔业局技术推广站」, 2005.12.13〉

● 푸젠성 장푸현, 중국 남부 최대 김 산지로 부상

최근 중국 푸젠(福建)성은 장푸현 려우마우(六鳌镇) 해역에서만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거북 김’을 ‘녹색식품상표’로 인증 등록을 하였다.

푸젠성 장푸현에서는 2005년에 김 양식장 500ha에서 이 김을 생산하여 중국 남부지역 최대의 김 생산지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생산량 중 대부분은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중국 내에는 상하이(上海), 관둥(廣東), 선전(深圳)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中国海洋报」, 2005.11.15〉

● 새로 개발된 ‘선푸 1호 김’, 기존 김에 비해 생산성 높아

중국 샤푸현(霞浦县) 수산기술보급소는 10월 29일 상해 수산대학의 멘싱홍(严兴洪) 교수 주관 하에 ‘김 우량종 육성기술’을 검증 받음으로써 국가과제 863계획에 대한 현장시험을 마쳤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선푸(申福) 1호 김’에 대한 전문가들의 현장 검증 결과, 평균 길이가 59.5cm로 과거에 생산된 ‘坛紫菜(중국 재래종 김, *Porphyra haitanensis*)’의 평균 길이인 40.03cm 보다 훨씬 길었다. 또한, 생산량도 기존 김에 비해 30.75%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김은 성장속도가 빠르고, 품질이 좋으며, 수확기간도 길어 생산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中国海洋报」, 2005. 11.8〉

● 중국 산둥성, 해양 신농산업 중 해수 양식을 첫 번째로 꼽아

산둥성에서는 ‘하이상산둥(海上山东)’이라는 구호 하에 고급 신기술을 기초로 산둥성 해양 신흥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급 신기술산업 발전에 의한 제15차 경제개발 계획 및 2010 목표’를 발표했다.

첫 번째 해양 신흥 산업으로 해수양식업이 제시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현대적 생물기술 이용, 명품 수산물 육성, 수산양식지의 오염 감소 등을 통한 해수양식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점 양식어종으로는 대하, 굴, 가리비 및 전복의 다배체 종묘, 넙치 삼배체 육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30여 곳의 명품 양식 기지를 건설하고, 10여

곳의 국가급 혹은 성급 원종장이나 양종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山东省发展计划委员会高技术处」, (2005.11)〉

● **중국 푸젠성, 전복 양식의 병해발생 원인 및 대응책 발표**

최근 푸젠성 둥산현(東山縣)에서는 성(省) 내의 전복양식 어업인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 전복양식과 잔류 약품 제어기술 훈련반’을 개설하였다.

이 행사에서 지메이(集美)대학 수산전문가 천창성(陳昌生) 교수는 ‘건강한 전복양식과 병해방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몇 년 동안의 전복 병해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와 대응책을 발표하였다.

천교수는 전복의 병해발생 대응책으로 양호한 생태환경 유지, 우량특성 회복 및 신품종 배양, 양식 후의 폐수처리와 종합적 이용 등을 거론하였으며, 건강한 전복 양식을 위해 ‘육묘, 성복양식 및 병해방지’라는 세 방면에서의 기술적 문제를 소개했다.

〈「福建省海洋与渔业局」, (2005.12.8)〉

● **중국 산둥(山東)성 루산(乳山)시, 굴 양식산업으로 지역경제 기여**

여름철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둥성 루산(乳山)시에서는 시(市) 어업 주관부서 주도로 어민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연근해 어장개발 및 시험양식을 시도하고 있다.

루산시는 2005년 9월 상순 웨이하이(威海), 옌타이(烟台) 등지로부터 규격이 크지만 비만도가 낮은 ‘태평양 굴’을 구입하여, 양식방법을 개선하였다. 굴의 생존율은 80% 이상이었으며, 비만도는 12~158%로 증가했고, 무게는 10~15% 증가했다. 총 생산량은 7,000kg 이상이었으며, 1만 위안(元) 정도의 총수입에 순이익도 6천 위안으로 수익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번 굴 양식의 성공은 루산시 인근에 있는 쉬자쩐(徐家鎮), 난황쩐(南黄鎮) 등 연근해 어촌의 노동력이 굴 양식업으로 집중되어 최근에는 3개 찢(鎮)에서 굴 양식면적이 300ha 이상으로 늘어났고,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도 1,200명이나 되었다. 이들 지역에서만 연간 굴 생산량이 약 4만 톤을 넘어섰고, 총 수입은 6천만 위안 이상에 달했으며, 1인당 수입은 3만 위안에 이르러 어업인들의 소득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山东省海洋与渔业厅」, 2005.12.14〉

1월 수온 전망(국립수산과학원)

1월의 해역별 수온 분포는 동해 중남부 해역 7~15℃, 남해 9~17℃, 서해 중남부 해역에서 4~10℃의 범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에 비하여 동해와 남해 연안해역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평년상 또는 1℃ 내외의 저온상을 보이겠으며, 서해에서는 연안 일부해역에서 평년상 또는 1℃ 내외의 저온상을, 나머지 대부분의 해역에서는 평년상 또는 1℃ 내외의 고온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해역별 월별 수온 분포〉

(단위: ℃)

구분		동해	남해	서해
2004년	12월	14~19	14~21	10~13
2005년	1월	2~15	10~18	3~10
	2월	2~15	7~15	1~11
	3월	2~13	8~15	2~10
	4월	2~14	11~16	3~11
	5월	5~17	14~20	10~17
	6월	14~22	20~25	16~23
	7월	19~26	24~28	21~27
	8월	22~28	24~29	22~28
	9월	21~26	22~27	20~26
	10월	13~23	20~25	16~20
	11월	16~21	17~22	15~19
	12월	3~16	10~19	4~11
2006년	1월	7~15	9~17	4~10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월별 인공위성 관측자료, 각 월

주 : 2006년 1월은 전망치

기상 예보(기상청) • 기간 : 1월 1일 ~1월 30일 • 발표일 : 12월 23일

기온은 평년(-8~7℃)과 비슷하겠다. 그러나 1월 상순에는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겠으며, 중순 이후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강수량은 평년(15~78mm)과 비슷하겠으며, 1월 상순에는 서해안 지방에, 하순에는 강원 영동 및 산간지방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수산물 수급정보

Market Information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2006년 1월호 제2권 제1호 통권4호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7-4 옥스퍼드 B/D 3층
TEL (02)2105-4920~9 FAX (02)2105-4939
<http://www.foc.re.kr> E-mail foc@kmi.re.kr

■ 편집검 발행인 : 이 정 환

■ 인 쇄 :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 (02)2272-1533

■ 발 행 : 2006년 1월 18일

■ 등 록 : 2005년 5월 24일 서울마02932
